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2014년 4월 취업자 수는 58만 1천 명 증가(전년동월대비)하여, 지난 1분기의 성과(73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3년 2월 이후 고용 호조세 지속
 - 취업자 증가가 2013년 2월(20만 1천 명 증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지난 1분기의 이례적인 성과를 논외로 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 가능
 - 고용률도 60.6%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증가하였으며(15~64세 고용률은 65.4%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상승), 2013년 초반 이후 고용률 증가 추세 지속
 - 실업자 수는 10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5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실업자 증가 및 실업률 상승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3개월 연속 계속되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4월 -2.3%, 최근 3개월 평균 -2.7%) 등을 감안할 때, 주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반영

- ◎ 최근의 고용 호조세 지속은 (1)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용 성과에다 (2)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특징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3)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 (4) 기저효과, 그리고 (5) 기타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
 - (1) 장기·구조적 측면: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증가 지속

- (2) 최근 특징 : 중소기업, 서비스업, 여성 위주의 고용성장
 - (3) 경기회복 : 서비스업 임시직 등의 고용증가
 - (4) 기저효과 :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인
 - (5) 기타 :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성과
- ◎ 2014년 4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특징들이 3월에 다시 뚜렷하게 등장하여 4월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 1월과 2월의 이례적인 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 등에 일시적으로 힘입은 바 컸으나, 3월 들어 그러한 일시적 영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2013년 하반기 들어 등장한 여성·서비스업·중소규모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성장 모습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4월에도 지속
 - 이들은 최근의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축
 - 여기에서 서비스업의 임시직 고용증가, 제조업과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증가가 어우러져 4월의 고용성과를 시현
- ◎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
- ◎ 연령별로 볼 때, 여전히 5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지난해 9월에 이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40대 연령층의 고용 약진도 지속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50세 이상 인구 4월 58만 3천 명 증가)에서 취업자 수가 47만 9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50대 27만 3천 명 증가, 60대 이상 20만 6천 명 증가)
 - 청년층 고용은 청년 인구 감소(4월 3만 4천 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9만 4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에 기여
 - ※ 청년층 가운데 10대의 고용도 증가(4만 2천 명)하였으며 20대 전반(20~24세)의 고용도 7만 3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 후반(25~29세)의 고용은 2만 2천 명 감

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이 연령층 인구 감소(5만 8천 명 감소)와 관련

- 4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는 최근 수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2012년 11천 명 증가, 2013년 22천 명 증가), 2014년 들어 1월의 9만 명 증가에 이어 2월 10만 9천 명 증가, 3월 9만 7천 명 증가, 그리고 4월 6만 8천 명 증가

◎ 여성의 고용성장 주도 지속

- 4월 여성 고용 29만 2천 명 증가, 남성 고용 28만 9천 명 증가
- 여성은 2013년 7월부터 전체 고용성장을 주도하다가 지난 3개월(2013.12~2014.2) 동안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였으나, 3월 들어 다시 여성 주도로 복귀하였으며 4월 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
- 여성의 고용증가 주도 현상은 최근의 고용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

◎ 고용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성은 20대 후반 그리고 여성은 3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집단(5세 단위)에서 고용률 상승

-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감소 추세가 2013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3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이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지속
- 구체적으로 4월의 고용률은 1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되었으나 고용률 증가폭 확대의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
- 남성 고용률은 71.7%로서 0.7%포인트 상승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49.9%로 0.9%포인트 상승
- 50대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에는 74.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상승
-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의 하락이, 여성의 경우와 달리 3월에 이어 4월에도 관찰되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와 실업 비중 증가로 볼 때 고용 호조세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와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
 - ※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69.4%로 0.6%포인트 상승,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2.6%포인트 상승,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

◎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

- 상용직 종사자는 53만 2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임시직도 15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9만 7천 명 감소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도 8천 명 감소
- 임시직 고용증가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
- 자영업자는 2013년 1월부터 계속 감소하여 오다가 최근 들어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3만 1천 명 증가하여 경제전체의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9만 6천 명 증가, 건설업에서 3천 명 감소
- 그동안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으며 4월에도 14만 명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만 2천 명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 12만 1천 명 증가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여러 부문에서 고용성장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 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
- 4월 서비스업 고용증가에는 2월과 3월에 이어 교육서비스업(4월 8만 6천 명 증가)도 상당한 기여

◎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

-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46만 7천 명 증가하여 최근의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성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도 11만 4천 명 증가하여 고용성장에 기여
- 취업자 대부분(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체 규모 간 고용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체도 고용

성과 측면에서 선전을 거듭

- ◎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미미
 - 4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2만 8천 명 증가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2월 명목임금(임금근로자 전체)은 8.5% 감소하였고, 실질임금은 9.5% 감소
 - 설 상여금 지급 월이 달라(2013년 2월, 2014년 1월) 2월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하였고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더욱 크게 감소
 -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상승률(3.2%)은 전년동기의 성과(4.7%)에 미달
 - 2014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로서 전년동월(4.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임금결정 진도율은 5.6%로 전년동월의 7.6%에 비해 미진
- ◎ 2014년 1~2월 평균 명목임금(임금근로자 전체)은 3.4%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4.6%에 미달
 - 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로 전년동기의 3.8%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낮기 때문(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모두 전년동기 실적을 능가)
 - 실질임금(임금근로자 전체)은 2.3%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2.1%를 능가하는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낮은 데 기인
- ◎ 2014년 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6.9시간(4.3%) 증가한 반면,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 감소
 - 2월 근로시간 증가는 월력상 올해 2월 근로일수가 작년 2월에 비해 1일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

최근 해외 고용동향

- ◎ 고용률로 볼 때,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근접하여 있으며 유로존보다 우수하나, 미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률은 최근 수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유로존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청년(15~24세)의 경우, 미국의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유로존 순인데, 미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유로존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상황

- ◎ 유로존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으며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낮고 미국은 중간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
 - 최근 들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양자의 격차가 확대
 - 미국의 4월 실업률은 6.3%로 3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
 -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월 들어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11.8%를 3월에도 그대로 유지

- ◎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는 여전히 우수한 반면, PIGS 국가들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
 - 독일의 고용률은 2013년 4분기에 73.5%로 높으며, 2014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9%에 불과(경제전체 실업률은 5.1%)
 - 반면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2014년 1분기에 25.4%이며, 청년 실업률은 54.1%, 그리고 2013년 4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54.6%이며 청년 고용률은 16.5%

에 불과

- 그리스의 경우도 4분기 경제전체 실업률은 27.4%로 높으며, 청년 실업률은 57.3%, 그리고 4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49.1%이며 청년 고용률은 12.1%로 열악